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교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01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10. 28.

발 의 자 : 김교홍 · 김수홍 · 김승원
김윤덕 · 김진표 · 맹성규
박상혁 · 송옥주 · 양이원영
윤미향 · 이상현 · 임호선
조정식 · 천준호 · 허종식
의원(15인)

제안이유

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은 위탁 및 용역 업체와 3~6개월의
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극도의 고용불안 상태에 있음.

상시 해고 가능성 속에 일부 위탁 및 용역업체 등의 취업을 미끼로
한 금품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채용비리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
공동주택의 체계적이고 투명한 관리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.

이에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의 채용을 미끼로 한 재물 또는 재산상
의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동주택
근로자들의 채용비리를 근절함으로써 근로환경 개선과 관리업무 정상
화를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
임.

주요내용

가.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,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도록 함(안 제53조제1항).

나. 관리사무소장 또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조항을 신설함(안 제90조제7항 신설 및 안 제98조제4호).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7호 또는 제8호”를 “제7호, 제8호 또는 제9호의2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
법률 제18385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9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(용역업자 포함)는 관리사무소장,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택관리업의 영업정지에 관한 적용례) 제53조제1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가 금품수수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53조(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)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,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.	제53조(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7호, 제8호 또는 제9호의2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9. (생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9의2. 제90조제7항을 위반하여</u> <u>주택관리업자가 금품수수 등</u> <u>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</u> <u>공한 경우</u>
10. · 11. (생략)	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8385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	법률 제18385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